

HEADLINE NEWS

관광진흥비용 조달 위해 「호텔 稅」 도입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 主稅局은 국제도시 東京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관광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호텔稅」를 도입키로 했다. 「호텔稅」는 都가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법정외 목적세 성격을 가진다. 都가 마련한 「호텔稅」 도입안에 따르면, 「호텔稅」는 1박 숙박료가 1만엔 이상인 호텔의 투숙객들에게만 부과된다. 1박 숙박료가 1만~1만 5천엔 미만일 경우에는 투숙객 1인당 100엔, 1만 5천엔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200엔이 부과될 예정이다.

「호텔稅」가 부과되는 숙박업소는 일본호텔협회나 시티호텔연맹에 가입된 都內 336개 호텔 중 36%에 해당하는 120개 호텔이며, 징수되는 세입 규모는 연간 15억엔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호텔稅」는 뉴욕(Hotel Room Occupancy Tax), 파리(Taxe De Sejour), 싱가포르(CESS) 등에서도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한편, 都의회는 「호텔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4일 실시할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KEIKAKU/SHOUSAI/70BB5100.HTM) (日經, 11. 28)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시기반시설 정비보다 생활밀착형 시책중심으로 시민요구 변화 (후쿠오카)
- ② 도시건설 300주년 기념 도시 새단장 '추진 러시아 : 상트페테르부르크)
- ③ 물질약 위해 「定量用水 관리제도」 실시 (북경)
- ④ 청소년 과외활동공간 및 시설 조성 (상해)

도시환경

- ⑤ 하천과 하수도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형 수해대책」 추진 (동경)
- ⑥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비료 생산 (일본: 토다市)
- ⑦ 환경교육용 CD-ROM 제작해 초등학교에 배부 (파리)

도시교통

- ⑧ 지하철에 미술작품 전시하는 「갤러리 열차」 운영 (런던)

사회복지

- ⑨ 都冇地를 사회복지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 (동경)

행.재정

- ⑩ 도시관광을 '티켓 한 장'으로 해결 (독일: 브레멘)
- ⑪ 음식값 20% 할인해주는 「Dine LA」 캠페인 실시 (LA)
- ⑫ 소규모기업 지원센터 설치해 자문 실시 (모스크바)
- ⑬ 경제분야 행정 인허가제도 50% 철폐 추진 (상해)
- ⑭ IT분야 기초교육 위해 모든 초중고에 최신 컴퓨터 설치 (프랑크푸르트)

① 도시기반시설 정비보다 생활밀착형 시책중심으로 시민요구 변화 (후쿠오카)

일본 후쿠오카市 주민들은 마을 만들기에서 '환경 분야'(35.9%)를 가장 중시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市가 도시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시민의식 조사에서 밝혀졌다. 市가 금년 여름 市 전체 약 59만 세대에 설문지를 배부해 2,648건을 회수,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육성·교육(35%)', '건강·복지(30.6%)'가 2·3위를 차지했다.

9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들이 교통이나 공공시설 등 하드웨어 정비보다는 시민생활에 긴밀한 시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이다. 市는 그 동안 지하철이나 도로 등 하드웨어 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 생활밀착형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사히신문, 11. 19)

② 도시건설 300주년 기념 '도시 새단장' 추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제정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市(구 레닌그라드市)는 2003년 도시건설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30건의 '도시 새단장'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도시외관을 가꾸는 것으로, 유서 깊은 건축물 보수 및 조형물과 예술품 복원이 주된 내용이다. 市는 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www.sptimesrussia.com/sponsor/index.php3)

③ 물절약 위해 「定量用水 관리제도」 실시 (북경)

중국 北京市는 2002년 1월 1일부터 주요 산업체에 대해 「定量用水 관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업체나 단체가 수도물을 정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상수도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市는 기업체나 단체가 사용하는 정확한 수량(水量)을 근거로 정량용수 관리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절수(節水)를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업부문 25개 업종, 176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市 소재 기업체의 90%가 넘는 수치다.

(인민망 일본어판, 11. 15)

④ 청소년 과외활동공간 및 시설 조성 (상해)

중국 上海市는 청소년 과외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중인 「東方綠舟」를 2002년 1월 1일부터 일반에 개방할 계획이다. 市는 현재 373헥타르의 부지에 잔디밭 17만²m², 대형 수목 10만 주(株), 관목 및 화초 120만 주(株)를 조성하고 있다. 총연장 700m의 「지식의 길」에는 동서 고금의 위인 및 저명인사 162명의 얼굴을 나타낸 조형물을 설치했다.

(인민망 일본어판, 11. 3)

⑤ 하천과 하수도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형 수해대책」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의 재해관련부서와 자치구, 기상청 등으로 구성된 ‘東京都 도시형 수해대책검토회의’는 11월 2일 그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시형 수해대책」을 발표했다. 검토회의는 금년 8월에 발표한 홍수재해예보도 이외에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하드웨어 측면의 대책을 이번에 추가했다. 都는 앞으로 관계기관들로 도시형 수해대책에 관한 연락회를 구성, 계속해서 검토·조정을 실시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www.toseishimpo.co.jp/news/bn01/bn011026.html)

6]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비료 생산 (일본 : 토다市)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토다(戸田)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리사이클업체 에코패스트社가 음식물쓰레기 비료화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수도권 의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구입해 비료로 만든 다음, 관동(關東) 일대의 농협에 판매하고, 처리장치도 지자체에 판매할 계획이다. 처리장치는 폐기된 식품에서 유분이나 수분을 제거한 후, 질소나 인 등 비료로서 유용한 성분으로 분해한다. 소각이나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에코패스트社가 東京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백화점, 음식점 등과 계약하여 kg당 1엔에 구입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리사이클 위탁요금을 에코패스트社에 지불하며, 수집과 운반은 각지에 소재한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한다. 이 처리장치는 하루 8시간 가동 기준으로 1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6톤의 비료를 제조할 수 있다. (日經, 11. 13)

7] 환경교육용 CD-ROM 제작해 초등학교에 배부 (파리)

프랑스 파리市는 환경교육용 CD-ROM을 제작,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금년 12월중에 배부할 계획이다. '쓰레기는 무엇이 되는가'라고 이름 붙인 이 CD-ROM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환경에 관한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市는 이외에도 일선 교사들과 공동으로 학교 교정에 정원을 조성하고, 환경관련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FR/HOTEL/CONFERENCES/mandature_actuelle/COM15112001.htm)

8 지하철에 미술작품 전시하는 「갤러리 열차」 운영 (런던)

영국 런던시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지하철 내에 전시하는 「전람회 열차」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예술가에 의해 제안된 이 프로그램은 오노 요코 등을 포함, 43명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2점씩을 기증해 전시하고 있다. 이로써 일반 시민들은 갤러리에 가지 않고도 공공 장소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철 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METRO, 11. 2)

9 都有地를 사회복지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 (동경)

일본 東京都는 효율적인 운영기법을 가진 민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시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都 소유지를 개방할 계획이다. 都는 우선 후츄우(府中)시 소재 都 소유지를 낮은 가격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임대해 장애인보호시설을 건립토록 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위해 都가 처음으로 임대하는 후츄우(府中)시 소재 토지는 면적 2,700㎡의 都 소유지로, 이전에 미군기지 부지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都는 이 일대에 장애인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장애인보호시설(32명 수용규모)과 목욕·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서비스센터(15명 수용규모)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都는 이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이용을 희망하는 사회복지법인을 공모하고 있다. 都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임대계약시 지급해야 하는 권리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월 임대료를 통상 20분의 1로 할인해 줄 계획이다. 이 시설은 2003년도에 착공해 2004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日經, 11. 13)

도시관광을 ‘티켓 한 장’으로 해결 (독일: 브레멘)

독일 브레멘시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와 관광수익 증진을 위해 ‘티켓 한 장’만으로 도시 전체와 주변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광중앙본부는 다양한 관광명소와 여가·위락시설, 교통관련기관 및 업체들과 함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3일 동안 버스에서부터 기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관, 호텔 등을 대상으로 한 할인혜택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티켓은 내년 봄부터 발매할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 인접해 있는 다른 지방정부와 연계, 시경계를 벗어난 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가격은 40유로(한화 약 4만 5천원) 정도이다. 시는 이 티켓이 연간 2천4백만명의 관광객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DIE WELT, 11. 6)

음식값 20% 할인해주는 「Dine LA」 캠페인 실시 (L.A.)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동시다발 테러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Dine LA」 캠페인을 시작했다. 「Dine LA」 캠페인은 로스앤젤레스시와 지역 음식점이 협력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Dine LA」 로고가 붙어있는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가격을 20%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시민들에게 외식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현재 시 요식업협회에 속한 60여 개의 식당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10. 31)

소규모기업 지원센터 설치해 자문 실시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市는 소규모 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정보제공 서비스를 수행할 컨설팅센터를 市 청사 내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모스크바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추가 설치키로 한 것이다.

市 소규모기업지원기금은 컨설팅센터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다른 센터와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앞으로 소규모 기업가들에게 'One-Stop Shop' 역할을 하게 된다. 인허가, 시장 전망 등을 비롯한 각종 자문은 유료이며, 최초의 기본자문 비용은 약 100루블이다.

市는 이들 소규모 기업이 모스크바의 총생산과 세입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년도에 소규모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는 827.7억 루블인데 비해, 2001년도 상반기에는 676.7억 루블(22.9억 달러)을 기록했다. 현재 소규모 기업 수도 181,898개로, 상반기에만 1,898개 증가했다. 市는 올해 말까지 각 區마다 2,000m² 규모의 소규모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들 센터들이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모스크바 타임스, 11. 1)

경제분야 행정 인허가제도 50% 철폐 추진 (상해)

중국 上海市는 향후 1년 내에 경제 분야의 행정 인허가제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市는 우선, WTO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행정 규칙과 법규를 정비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와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자산평가사무소 등의 중개조직을 설립할 예정이다. 市는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 및 재계에 대한 직접관리 방식에서 탈피, 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민망 일본어판, 11. 5)

46) IT분야 기초교육 위해 모든 초중고에 최신컴퓨터 설치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향후 5년간 각급 학교에 최신 컴퓨터와 네트워크 설치를 위해 6천만 마르크(한화 약 36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市는 IT(정보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기초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실제로 독일연방정부에서는 IT분야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올해부터 매년 2만명의 외국 전문가를 들여오기로 했으며, 현재 1만명의 IT 전문인력이 외국에서 들어온 상태이다.

市는 학교에 보급되는 컴퓨터가 실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교사의 절반 정도는 컴퓨터관련 자격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市는 이를 위해 교사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11. 3)